

연백국화 (학명 : *Aster pilosus*, 국화과)

연백국화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종이고 웅긏나물은 자생종이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일대에 집단밀원이 (갑자기) 형성되었고, 서울 양재천변에 널리 퍼져 있는등 빠른기간에 번지는것이 귀화식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생종은 그렇게 빨리 번식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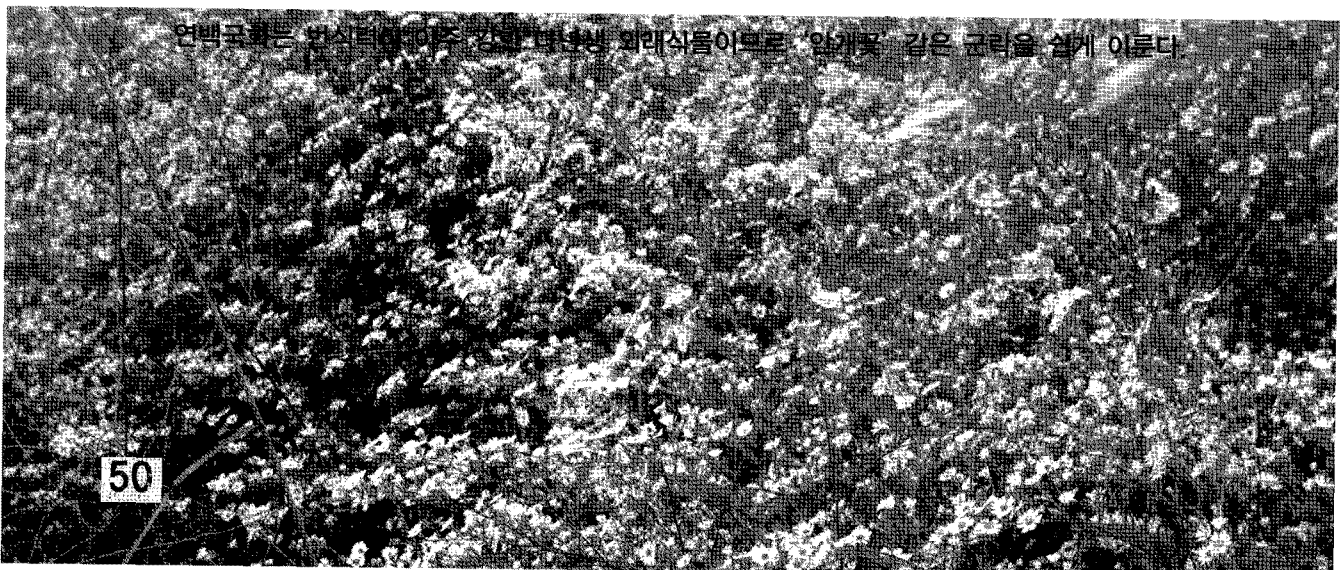
연백국화는 일본에서도 귀화식물로 인정하며(長田武正, 原色日本歸化植物圖鑑, 1983년, 保育社 出版), 북미원산으로 1950~1953 사이에 미군 주둔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연백국화의 씨가 군수물자와 함께 들어온 듯하다.

일본에서 발행된 양봉계라는 잡지에 소개된 연백국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백국화는 다년초로서 줄기 높이가

40~120cm이고 하부는 목질화 되어 있다. 무더기포기로 나며 가지는 줄기에서 직각으로 나고 끝이 종종 늘어진 감이 있다. 잎은 때로는 낫모양으로 구부러지고 거치는 불명하며 양면에 거의 털이 없다.

우리 나라에 없던 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나라 이름으로 누가 어떻게 지을까? 그 식물의 특징을 밝히고, 그 식물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지어 논문으로 발표하면 그 후 그 이름으로 통용된다. 새로 이름을 짓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므로, 학명을 그대로 하거나 혹은 조금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리기다소나무는 학명 *Pinus rigida*를 그대로 부른 것이고, 아까시나무는 학명 *Robinia pseudoacacia*에서 *pseudo*(비슷한, 가짜의)를 떼어버리고 부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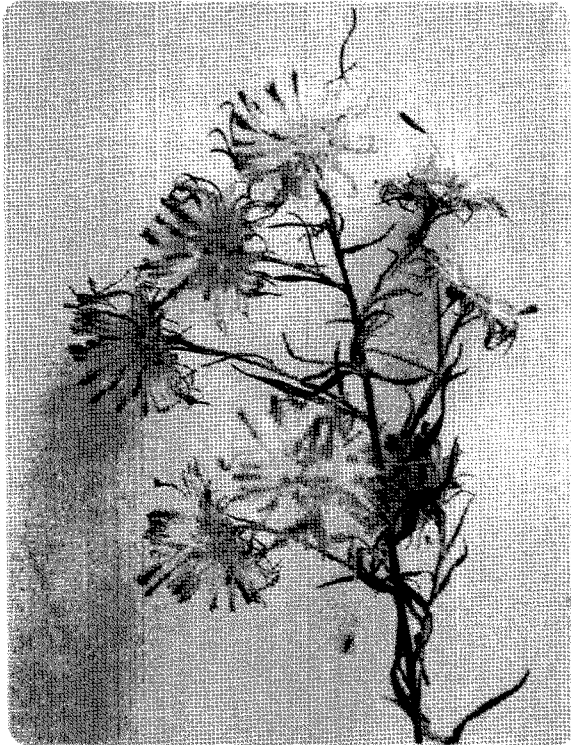
연백국화는 번식력이 아주 강한 다년생 귀화식물이므로 '알개꽃' 같은 군락을 쉽게 이룬다.



아래에 연백국화의 그림과 우리나라 몇몇 도감에 실린 옹긋나물의 그림을 함께 신는다. 두 그림은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연백국화는 밀원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크며, 벌꿀은 적갈색으로 결정이 잘 되는 특징이 있으며, 화분 색은 농황색이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연백국화의 화분 모양은 아래 그림과 같이 코스모스나 개망초 등 국화과 식물의 화분 특성과 비슷하다. 벌이

수집해 오는 화분을 채집하여 밀원을 조사해 보았더니 10월 2일에는 연백국화의 화분이 75%나 되었다. **양봉**



연백국화의 씨는 겨울에도 하얗게 붙어 있다가 바람에 날려간다.



도감에 나와있는 옹긋나물의 그림